

중학교 국어 교과서 단어 형성법 단원의 문제*

윤구희(서울사대부중)

<요 약>

본고는 제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 단어 형성법 단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어 형성법 단원은 첫째, 단원이 위계에 맞게 위치되지 못하고, 둘째, 단원 구성 방식이 다른 영역과의 통합적 방식이 되지 못했으며, 셋째, 문법 용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비효율적이다. 넷째, 교수·학습을 위한 예시로 사용된 단어의 수준이 중학생 수준 학습자의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먼 사용 빈도가 낮은 단어가 다수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학습자들의 실제 언어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한자어와 외래어가 배제되거나 일관성이 없이 제시하고 있어 교수·학습에 혼란을 주고 있다.

따라서 단어 형성법 단원은 단어 형성법과 형태소를 결합한 단원으로 구성되고, 국어의 다른 영역과의 통합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정도의 문법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학습자의 실제 언어생활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용 빈도가 낮은 단어의 사용을 줄이고, 한자어, 외래어, 새말 등을 일관성 있게 제시해야 한다.

주요어: 단어 형성법, 학교 문법, 형태론, 교과서, 파생어

* 이 논문은 제10회 한국문법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이다.

I. 머리말

2007년 2월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이하 2007년 교육과정) 발표 이후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 작업이 진행되어 2010년부터 중학교 7학년에 적용될 예정이다. 제5차 국어과 교육과정 이후 점차 그 위상이 달라진 문법¹⁾ 영역은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문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제기와 함께 많은 변화를 요구 받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학교 국어 교과서 문법 영역의 내용 선정 및 구성에 대한 요구도 상당하다. 특히 2007년 교육과정 이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국정 교과서가 없어지고 검정 교과서로 다양화되기 때문에 국정 교과서 기술에 한정된 지식으로만 가르칠 수 없어 문법 교육 내용 및 방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2007년 교육과정에서 문법은 영역 명칭의 변경과 함께 새롭게 맥락 범주를 설정하였다. 이는 문법 지식과 기능이 탈맥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맥락을 고려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언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매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사용의 실제적 측면에서는 어휘 부분이 축소되고 '담화/글' 차원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어에 대한 인식과 국어 생활사 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새 교육과정이 실제로 구현되는 교과서 편찬을 위해서는 기존 교과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2011년부터 적용될 8학년의 경우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이 '남북한 언어 비교, 어휘의 사용 양상, 단어 형성법, 중의적 표현, 상황 맥락'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는 단어 형성법과 관련된 내용은 형태론의 주요 개념인 형태소와 단어의 개념을 함께 다루고 있고, 다른 성취기준에 비해 교육 내용의 비중이 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수·학습되고 있는 제7차 중학교 『생활국어』 교과서 단어 형성법 단원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문법 영역 새 교과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국어지식'이라고 했지만 2007년 교육과정에서는 '문법'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II. 단어 형성법 단원의 문제

제7차 중학교 국어과 교과서는 『국어』와 『생활국어』의 두 책으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문법 영역은 『생활국어』에만 제시되고, 『국어』에는 일부 제재적인 차원²⁾에서 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분책 구성은 다양한 영역의 언어가 통합적으로 실현되는 언어현실을 무시하고 이를 나누었다는 지적과 함께 문법에 대한 경시 풍조³⁾를 확산시켰다는 등의 문제점 지적이 있었다.

현재 교과서 체제에서 단어 형성법⁴⁾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위계성과 단원 구성, 문법 용어의 사용, 교과서 제시 단어의 수준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위계성의 문제

첫째, 현재 교과서에서 단어 형성법은 중학교 8학년 2학기에 관용 표현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 단어 형성법과 관용 표현 모두 어떤 부분이 모여서 하나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다는 측면에서는 일면 타견으로 보일 수 있으나, 문법이 위계와 체계를 중요시하는 영역이라는 면에서는 부적절한 구성으로 보인다. 이는 단어 형성법이 단어 차원이라면 관용 표현은 문장 또는 담화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층위가 다른 것을 묶었다는 문제와 함께 단어 형성법에 필수적인 형태론적 개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2) 7학년 과정에서 훈민정음의 탄생, 문자의 역사,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등이 하나의 텍스트로 제시되고 있다.

3) 이는 『국어』에 비해 『생활국어』 교과서의 활용 빈도가 현저히 떨어지며, 초창기 『생활국어』 교과서에 구성된 듣기, 말하기, 쓰기 영역 등에 대한 교사 대상 연수의 부족으로 거의 형식적이거나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함께 『생활국어』 교과서에 같이 편제된 문법 영역 또한 그 중요성과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4) 제7차 중학교 국어교과서에는 '낱말 형성법'으로 2007년 교육과정에서는 '단어 형성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새 교과서의 편찬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새 교육과정에서 명칭인 '단어 형성법'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표 1〉 제7차 중학교 『생활국어』 중 문법 단독 단위

학년/ 학기	교과서 단위 구성	교육 내용
7-1	4. 국어 생활의 반성 (1) 외래어, 은어, 비속어, 유행어 (2) 국어 생활 반성하기	- 은어, 전문어, 속어, 비어, 유행어의 개념을 안다. - 국어를 순화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7-2	2. 낱말과 형태소 (1) 음절과 어절, 낱말 (2) 형태소	- 음절의 개념을 안다. - 형태소와 낱말의 개념을 안다.
	5. 낱말의 의미 (1) 동음 이의어 (2) 다의어	- 동음 이의어와 다의어의 개념을 안다.
8-1	3. 국어의 언어적 특징과 음운 (1) 국어의 언어적 특징 (2) 국어의 음운	- 언어의 사회성을 안다. - 언어의 역사성을 안다. - 국어의 음운 체계를 안다.
8-2	2. 낱말 형성법과 국어의 관용어 (1) 낱말 형성법 (2) 국어의 관용어	- 국어의 조어법을 안다. - 관용어의 개념을 안다.
9-1	4. 음운의 변동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2) 음운의 동화 (3) 음운의 축약과 탈락	- 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을 안다.
9-2	2. 문장의 구조 (1) 문장의 구조 (2) 문장의 주성분 (3) 문장의 부속 성분과 독립 성분 (4) 중의적 문장	- 각 문장 성분의 특성과 문장 구성 원리를 안다. - 문장의 구조로 말미암아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현상을 안다.
	5. 품사의 분류 (1) 단어의 분류 (2) 품사의 특성	- 품사의 분류 기준과 각 품사의 특성을 안다.

둘째, 〈표 1〉에서 보듯이 단어 형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형태소의 구분과 단어의 개념이 중학교 7학년 2학기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8학년의 단어

형성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1년 전에 배웠던 내용을 상기시켜야 하는 부담이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문법의 내용이 단편적으로 제시되는 것보다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됨으로써 학습을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교수·학습에 있어서는 형태소, 단어의 개념과 단어 형성법을 묶는 더 효율적이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품사’ 단원이 단어 형성법 뒤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구성에 대해 이관규(이관규, 2005: 24)의 지적처럼 단어와 동일한 대상인 품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종류에 어떤 것이 있는지 교수 학습한 다음에, 이 단어들의 형성 방법을 교수 학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단어 형성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품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앞에 위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단원 구성 방식의 문제

첫째, 문법 단원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문법만의 단원 구성과 문법과 다른 영역을 통합하는 단원 구성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문법을 단순히 제재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현재 『생활국어』 교과서의 문법 관련 12개의 대단원 중에서는 <표 1>과 같이 8개가 문법만의 단독 단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4개의 경우 다른 영역과의 통합 단원으로 구성되고 있다. 문법 단독 단원 구성은 문법의 개념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장점 못지않게 문법 지식만의 고립적이고 분절적인 형태의 교육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생활국어』의 문법 단원들은 실제 언어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여주지 못하고 국어 능력 신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교과서 틀 안에 갇힌 지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법 교육의 흐름은 문법이 국어 활동에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바탕 지식으로서의 쓰이는 유용한 수단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둘째, 현재 국정 교과서는 읽기와 문학을 『국어』에서 듣기·말하기·쓰기와 문법을 『생활국어』에서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문법은 원천적으로 읽기와 문학을 통합하는 단원을 구현할 수는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표 2〉 제7차 중학교 『생활국어』 중 문법과 다른 영역 통합 단위

학년/ 학기	단원 구성	통합 양상
7-1	6. 상황에 맞게 말하기 (1) 상황에 맞게 말하는 방법 (2) 상황에 맞게 말하는 연습	말하기+듣기+문법
8-1	6. 바르게 쓰기 (1) 바른 문장 쓰기 (2) 올바른 국어 생활	쓰기+문법
8-2	5. 발화의 기능과 표현 (1) 발화의 여러 가지 기능 (2) 발화의 기능을 고려하여 말하기	문법+말하기
9-1	6. 남북한의 언어 (1) 남북한 언어의 차이 (2) 남북한 언어가 나아갈 길	말하기+문법

또한 〈표 2〉에 제시된 문법과 다른 영역이 통합된 단위 중에서도 9학년 1학기 '남북한의 언어' 단위처럼 겹으로 통합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 교과서 내용 및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통합의 모습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⁵⁾ 이런 통합의 양상은 진정한 의미의 통합⁶⁾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 단원의 구성은 '단어 형성법' 단위에서도 그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 단어 형성법 단원은 문법만의 단독 단원으로 구성에다가 앞의 위계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같이 연관성이 떨어지는 관용 표현과 함께 묶여 있다. 또한 단어 형성법 소단원 안에서도 문법적 개념과 지식에서 끝날 뿐 이를 다른 국어 영역과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뿐이다. 학습자들은 단어 형성법을 배

5) '남북한의 언어' 단위에서 말하기는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남북한의 언어 차이에 관한 문법 영역 학습 뒤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토론하는 학습 활동 하나를 두고 말하기와 문법이 통합되었다고 한다.

6) 주세형(2006)에서 통합의 양상을 불완전한 통합인 '랑데부'와 공통된 언어 양식에 주목하고 이를 중심으로 교육 목표를 공유하는 '도킹'의 통합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위 단어의 짜임에 대해 알겠지만 이를 어디에 쓸지, 어떤 이로움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하고 있다.

3. 문법 용어 제시의 문제

문법은 다른 영역에 비해 개념이 중요한 학문이다. 이런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를 지칭하는 문법 용어가 중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문법 용어는 1960년대 품사의 용어를 둘러싼 국어학계의 갈등에서 보듯이 학자의 철학을 뛰어넘는 일과도 관련되는 부분이다.

현재의 문법 용어는 1960년대 이후 통일된 문법 용어의 체계를 따르고 있지만 고유어와 한자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⁷⁾ 이러한 고유어와 한자어의 혼재 현상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단어와 관련된 형태론에서이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문법 용어 사용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더라도 같은 학교급간에서도 용어를 달리 쓰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1가,나)에서 처럼 중학교 7~8학년은 초등학교 단계의 연속으로 보아 '낱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1다)처럼 9학년에서는 이를 '단어'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 (1) 가. 일반적으로 '영미', '학생'과 같이 홀로 설 수 있는 말을 낱말이라고 한다.
 <중학교 7-2: 37>
 나. '밤'과 '나무'처럼 각각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낱말을 단어들이라고 한다.<중학교 8-2: 43>
 다. 단어를 분류하는 일은 언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학교 8-2: 129>
 (밑줄 필자)

이렇게 용어를 다르게 쓰는 것은 이들 문법 용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교과와 이를 학습해야 하는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또한 학습했던 용어와 개념이 어떤 시점부터는 다른 용어로 불린다는 것도 교수·학습 과정

7) 품사의 명칭은 '명사, 대명사, 수사'처럼 한자어를 쓰고 있지만, 음운에서는 '울림소리, 안울림소리, 예사소리, 된소리'처럼 고유어를 쓰고 있다. 또는 '입술소리(순음), 혀끝소리(설단음), 센입천장소리(경구개음)'처럼 고유어와 한자어를 병기하여 쓰기도 한다.

에서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의도적으로 문법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2)에서처럼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형태소와 단어의 형성 단위에서는 상당히 많은 개념이 문법 용어를 통해 설명되고 있다.

(2) 가. 〈형태소〉 단위 : 형태소,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단어

나. 〈단어의 형성〉 단위 : 어근, 접사, 파생 접사, 굴절 접사,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 접두사, 접미사, 반복 합성어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이에 비해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 사용된 용어의 절반 정도만 사용되고 있다.

(3) 가. 〈낱말과 형태소〉 단위 : 낱말, 형태소 〈중학교 7-2〉

나. 〈낱말 형성법〉 단위 : 어근, 접사,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 〈중학교 8-2〉

물론 중학교 단계가 고등학교에 비해 수준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수준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교과서에 표면적으로 그 개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용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교수·학습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4) '높다'의 '높-'은 '아래에서 위까지 길이가 길다'는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며, '-다'는 '문장을 마친다'는 문법적인 뜻을 나타낸다. (밀줄-저자)〈중학교 7-2: 39-40〉

(4)에서 보듯이 '실질적인 뜻'을 나타낸다는 것은 '실질 형태소'를 '문법적인 뜻'을 나타낸다는 것은 '형식 형태소'를 뜻한다. 해당되는 개념은 제시하지만 용어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명시적으로 용어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억지 노력을 하거나, 차라리 처음부터 이런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필기에 대한 부담과 함께 문법의 개념을 이를 지칭하거

나 연상되게 하는 실마리가 되는 단어 없이 학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5)의 경우는 그 어려움의 단적인 예이다.

- (5) '아침'과 '바람'은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이다. '아침'과 '바람'은 홀로 설 수 있기 때문에 낱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소로는 이밖에 '산', '강', '사람', '하늘', '밤' 등이 있다.
 '에'와 '이'는 홀로 쓰일 수 없는 형태소이다. '에'와 '이'는 홀로 쓰일 수 없지만, 그 특이한 성격 때문에 낱말로 인정한다. 이와 같이 형태소 중에 홀로 쓰일 수 없으면서도 낱말로 인정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형태소로는 이 밖에 '가', '을', '의', '와', '는', '이다' 등이 있다.
 '불-', '-었-', '-다'는 홀로 쓰일 수 없는 형태소로서 낱말이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형태소 중에는 홀로 쓰일 수도 없고, 낱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있다.
 <중학교 7-2: 42>

(5)의 경우 '홀로 쓰일 수 있다'는 '자립' 유무에 따라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누는 내용이다. 앞서서처럼 개념은 다 노출하고 있으면서도 용어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간단한 개념을 어렵게 반복하게 되어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다음은 '단어 형성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인데 접사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어근의 앞에 오는 것'과 '뒤에 오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

- (6) 복합어는 다시 두 종류로 나뉜다.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된 복합어는 합성어라고 하고, 하나의 어근에 접사가 결합된 복합어는 파생어라고 한다. 접사는 어근의 앞에 오는 것도 있고 뒤에 오는 것도 있다. <중학교 8-2: 45>

(6) 또한 '접두사'와 '접미사'라는 용어를 피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 뒤에도 (7)과 같이 제시된 단어를 파생어로 형성해 보는 활동에서는 접두사와 접미사를 구분하고 있다. 이 활동을 교수·학습할 때는 '접두사'와 '접미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좀더 효율적일 수 있다.

- (7) 다음 낱말의 어근 앞이나 뒤에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파생어를 찾아보자.
 -기름-, -받다-<중학교 8-2: 46>

4. 학습자 언어생활 반영의 문제

중학생 학습자들의 언어생활은 성인들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며, 학습자들은 자신들과 가까운 '지금 여기(now here)의 언어'⁸⁾에 좀더 큰 흥미를 느끼고 학습에도 용이하다. 그런데 현재 교과서에서 교수·학습을 위해 예로 든 단어는 학습자들에 가까운 '지금 여기'의 언어와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어휘 수준, 외래어와 한자어 사용, '해돋이'류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어휘 수준의 문제

중학교 8학년 2학기 (2) '날말 형성법' 단원에 사용된 단어들의 어휘 수준에 대한 검토를 위해 『생활국어』 교과서에서 단어 형성법 설명을 위해 제시된 64개 단어를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 자료로 이루어진 조남호 외(20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와 메타 분석을 통해 교육용 어휘 등급을 분류한 김광해(2003)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를 통해 그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조남호 외(2002)⁹⁾는 고빈도 어휘일수록 국어교육에 필수적인 어휘이고 실제 언어생활에 가까운 어휘라고 할 수 있다. 김광해(2003)은 어휘 교육과 어휘 등급이 부족한 우리 국어 교육의 현실에서 기존의 어휘 빈도수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용 어휘를 7등급으로 구분했는데 이 중 1~4등급까지의 어휘량과 개념은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듯이 학습자의 성장단계를 고려할 때 1~3등급의 어휘가 중학교 수준에서 적합한 어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해당 단원의 어휘 수준을 검토했다.

8) 통시적으로 학습자들에게 가까운 현대의 언어, 공시적으로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사회의 언어를 말한다.

9) 조남호 외(2002)는 국립국어원에서 시행된 연구로 현대인들의 실제 언어 사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말뭉치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빈도수를 제시하고 있다.

〈표 3〉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김광해 2003: 27)

어휘량	누계	등급	개념
1,845	1,845	1	기초어휘
4,245	6,090	2	정규 교육 이전
8,358	14,448	3	정규 교육 개시~사춘기 이전, 사고 도구어 일부 포함
19,377	33,825	4	사춘기 이후~급격한 지적 성장, 사고도구어 포함

〈표 4〉 교과서 예시 단어의 등급별 비율

김광해(2003)의 등급	단어의 수	비율	비율
1	11	17.18	84.37
2	30	46.87	
3	13	20.31	
4	5	7.81	15.63
5등급 이상	5	7.81	
전체	64	100	100

〈표 4〉에서 보듯이 교과서 단어 중에서 정규 교육 이전에 학습해야 할 2등급의 비율이 46.87%로 가장 높고 사춘기 시기에 배워야 할 3등급의 어휘는 20.31%로 그 다음이다. 1~3등급의 어휘를 중학교 학생에게 적합한 단어로 볼 때 그 비율은 84.37%로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다.

하지만 〈표 5〉에 제시된 ‘날음식, 벌, 꽃과일, 햇밤, 햇병아리’와 같은 4~5등급 이상의 고등급의 어휘 또한 15.63% 정도 쓰이고 있고, 국어교육용 등급은 높으나 학습자들의 사용 빈도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덧신, 덧버선, 덧저고리, 마소, 햇곡식, 우짚다, 햇나물’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사용 빈도가 뚜렷하게 떨어지거나 등급이 높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학습자와 교사 모두에게 어떤 것과 어떤 것이 결합되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단어 형성법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의미 전달의 문제점을 알게 된다.

그 예로 합성법을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벌판’의 경우 ‘벌+판’일 때 어

근 '벌'의 경우 '넓고 평평하게 생긴 땅'이라는 의미를 전달해야 하지만 이를 학습자가 이해하기는 어렵다. 파생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덧버선, 덧신, 덧저고리'의 경우에도 학습자 세대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사물들이다. 그래서 접두사 '덧-'의 '거듭, 겹쳐서 입거나 신는'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물들의 형태와 모습, 사용법 등의 부차적인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중심이 되는 단어 형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의 초점이 흐려지게 된다.

〈표 5〉 교과서 예시 단어의 어휘 등급

단어	조남호 외 (2002)의 빈도수	김광해(2003) 의 등급	단어	조남호 외 (2002)의 빈도수	김광해 (2003)의 등급
나무	395	1	손수건	20	2
높다	691	1	송이01	29	2
눈물	271	1	앞뒤	46	2
덮다	99	1	오가다	60	2
돌아가다	405	1	이튿날	75	2
물01(水)	14	1	집계01	8	2
벗어나다	357	1	책가방	22	2
배개	19	1	한두	132	2
설탕	97	1	흙탕물	14	2
소나무	105	1	덧니	2	3
옷	400	1	덧버선	0	3
가까이	56	2	덧저고리	0	3
국물	64	2	마소	0	3
군밤	2	2	물거품	7	3
깊이(명)	63	2	물걸레	2	3
깊이(부)	138	2	밤낮(명사)	15	3
넓이	13	2	밤낮(부사)	13	3
덧신	0	2	밤송이	5	3
따님	3	2	손발	37	3
뛰놀다	16	2	여닫다	3	3
뛰어나다	136	2	춘추01	1	3

물가 (물 가장자리)	8	2	햇곡식	0	3
물개	5	2	날고기	1	4
물고기	56	2	우짚다	0	4
물병	0	2	햇과일	2	4
바느질	9	2	햇나물	0	4
밤나무	20	2	햇보리	1	4
방울01	35	2	날음식	0	5등급 이상
방울02	33	2	별01	0	5등급 이상
별판	17	2	풋과일	0	5등급 이상
설탕물	1	2	햇밤	0	5등급 이상
소금물	14	2	햇병아리	3	5등급 이상

나. 한자어와 외래어 문제

학습자들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한자어와 외래어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자어의 경우 '햇곡식[햇+곡식(穀食)]', '날음식[날+음식(飮食)]', '물병[물+병(瓶)]', '춘추(春秋)[春+秋]'의 4개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곡식, 음식, 병'의 경우처럼 어근으로 사용될 뿐 생산성이 높다고 알려진 접사로는 쓰이지 못하고 있다. 외래어의 경우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학교 문법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문법이기 때문에 교육적 필요에 따라 실제 언어생활을 그대로 반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실제 학습자가 접하는 언어에서 한자어와 외래어가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¹⁰⁾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해마다 유행하는 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신어(새말)의 경우 외래어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¹¹⁾ 한자어 또한 53%(국립국어원, 2005)의 비율을

10)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1999) 수록 표제어 508,771개 중에서 고유어가 25.9%, 한자어가 58.5%, 외래어가 4.7%, 혼합어가 10.9%를 차지한다고 한다(정호성, 2000).

11) 신어 중 외래어의 비율은 2002년 64%, 2003년 56.1%, 2004년 55.1%, 2005년 23.3%를 차지한다(국립국어원, 2005).

차지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학습자들이 실제로 접하는 언어와는 동떨어진 학문적인 언어 체계 속에서 '단어 형성법'을 가르쳐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문제점의 원인은 '단어 형성법'의 근간이 되는 '형태소 분석'에 있다. 형태소 분석에 있어서 한자어를 어떻게 처리할지, 접사로 설정할 것인지 아닐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교과서에서도 사용된 4개의 한자어 중에서 '곡식(穀食)'과 '음식(飮食)'은 2음절을 하나의 단어로 취급했고, '물병(瓶)'과 '춘추(春秋)'에서는 1음절씩을 형태소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보충·심화에서 제시한 한자어 중에서는 [한자어+고유어]의 합성인 '철길[鐵+길]', '산길[山+길]'의 경우에는 이를 합성어로 인정한다고 교사용 지도서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시골역[시골+驛]'의 경우는 합성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자어로 된 '고속 도로(高速 道路)', '자연 현상(自然 現象)', '신작로(新作路)', '도시(都市)', '친정(親庭)'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등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교사와 학습자를 모두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다. '해돋이'류의 문제

학계에서 논란이 되는 '해돋이'류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는 '해돋이'류가 그 형성과정에 따라서 합성어로도 파생어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습자들에게 이를 언급하지 않고 갈 수는 없다. (8)의 경우처럼 '접두 파생'과 '접미 파생'을 생산할 경우에 많은 단어를 형성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구분하는 것은 필수적인 활동이다.

(8) 다음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낱말을 찾아 모둠별로 '릿자로 끝나는 말' 노래를 모방하여 불러 보자. (중략)

- '뫓-'자로 시작하는 말은? ● '치-'자로 시작하는 말은?
- '-쟁이'로 끝나는 말은? ● '-이'로 끝나는 말은? <중학교 8-2: 47>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때밀이[[때+밀(다)]+--이], 쫓먹이[[쫓+먹(다)]+--이], 재떨이[[재+떨(다)]+--이], 옷걸이[[옷+걸(다)]+--이]' 등의 '해돋이'류의 단어들을 제시하고 이를 파생어로 보고

있다. 교과서에서 언급하지 않지만 실제 활동에서는 떡볶이[[떡+볶(다)]+--이]처럼 충분히 예상되는 단어 형성이라면 굳이 설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해돋이'류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단어 형성법의 다른 양상을 보여주지 않아 파생과 합성의 단순한 이분법으로 구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학습자들이 답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뜻-'을 파생할 때 많은 질문이 나오는 '뜻내기'에 대한 설명이 되고 있지 않아 교사와 학습자를 혼란스럽게 한다.¹²⁾

Ⅲ. 단어 형성법 단원의 문제 해결 방법

새로운 교과서의 편성 방향은 앞에서 밝힌 4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위계성, 단원 구성, 문법 용어 제시, 학습자의 언어생활 반영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단원 구성의 실체를 보여주어야 하겠지만 본고에서는 그 편성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자 한다.

1. 위계성의 문제

교과서의 위계성은 교육과정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앞에서 지적했던 3가지 문제점 중에서 첫째, 둘째로 지적했던 단어 형성법 단원과 형태소 단원의 결합 필요성은 2007년 교육과정에서 관용 표현은 7학년에, 단어 형성법은 8학년에 배치하면서 형태소의 개념을 내용 요소의 예로 제시하고 있어 동일한 단원에서 형태소의 개념, 단어의 개념과 단어 형성법을 교수·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

12) '뜻내기'는 '뜻-'이라는 접두사에 '-내기'라는 접미사가 결합된 [접사+접사]로 보고 있지만 이를 파생어로 볼 것인지 합성어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 (9) [8-문법-(3)] 국어 단어 형성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단어 형성과 관련된 국어의 특징 이해하기
- 형태소와 단어 개념 이해하기
- 단어의 짜임(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이해하기
- 단어 형성법을 알고 창조적으로 활용하기 (2007년 교육과정)

셋째로 지적했던 품사 단원과 단어 형성법 단원의 선후 배치 문제는 2007년 교육과정에서는 품사를 7학년으로 단어 형성법에 앞에 위치하고 있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표 6>에서 보듯이 문법 성취 기준의 구성이 문법 단위별 위계성을 지키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분절적으로 제시되다 는 문제점은 그대로이다. 특히 음운의 경우 중학교 수준에서는 9학년에 음운의 체계가 언급될 뿐이고, 그 사용 양상과 바른 발음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것은 고등학교 10학년에 제시되고 있어 연계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비해 단어 수준의 경우 7학년에서 품사의 개념이 8학년에서 형태소와 단어 형성에 대해 배우게 되어 어느 정도 문제점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6> 2007년 교육과정 중학교 학년별 성취기준

학년	성취 기준	국어와 삶					국어와 삶		국어와 삶	
		언어의 본질	음운	단어	문장	담화	의미	국어와 규범	국어와 생활	국어의 변천
7	(1) 다양한 매체에 나타난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				
	(2)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한다.				○	○				
	(3) 품사의 개념, 분류 기준, 특성을 이해한다.			○						
	(4) 표현 의도에 따라 사동·피동 표현이 달리 사용됨을 안다.				○					
	(5) 지시어가 글의 구조와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illegible]

2. 단위 구성 방향

2007년 교육과정에 따라 『국어』와 『생활국어』의 분책 형태는 유지되지만 책에 따른 영역 구분은 없어지고, 두 책 사이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국어』에서 익힌 원리를 『생활국어』에서 다양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서 편찬 시 영역별 통합이 더욱 강조되고 실천적 학습 활동의 모습이 두드러질 것이다.

8학년 중학교 국어 교과서 편성에서 '문법 (3) 국어 단어 형성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를 교과서로 구성할 때 형태소와 단어의 개념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단어 형성법에 대한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앞의 지적처럼 고립된 문법 지식이 아니라 그 쓰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용의 모습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단어 형성법만의 단위 구성보다는 단어의 짜임이 필수적인 '문법 (2) 여러 종류의 어휘를 비교하고 그 사용 양상을 설명한다.'와 같이 연계되는 단위가 좋을 것이다.

〈표 7〉 단위 성취 기준 결합의 예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교육과정
형태소	7-(3) 형태소와 낱말의 개념을 안다.	8-(3) 국어 단어 형성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단어 형성법	8-(4) 국어의 조어법을 안다.	
어휘	7-(4) 은어, 전문어, 속어, 비어, 유행어의 개념을 안다.	8-(2) 여러 종류의 어휘를 비교하고 그 사용 양상을 설명한다.

이렇게 결합될 경우 형태소와 단어 형성법의 문법 지식이 다양한 종류의 어휘를 비교하고 그 짜임과 의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또다른 측면에서 '단어 형성법'이 단어의 짜임을 파악하고 단순히 단어를 만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형성 원리를 통해 내용의 이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읽기 영역과는 통합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매체에 등장하는 학생들의 언어생활을 점검하고 바른 태도를 함양시켜 문법

태도를 변화시키는 측면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국립국어원에서 시행하는 ‘우리말 다듬기’와 같은 순화어를 만드는 형식의 활동도 유용할 것이다.

3. 문법 용어의 사용

‘단어’라는 문법 용어를 ‘낱말’과 혼용하는 것은 교수·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준다. 따라서, 2007년 교육과정에서 품사 단원에서 단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낱말’ 대신 ‘단어’로 통일해야 할 것이다.

문법 용어 제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내용의 적정화 때문에 문법 용어의 노출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문법 용어가 제시되지 않지만 어차피 해당되는 개념이 교수·학습된다면 오히려 적절한 수준에서 문법 용어를 노출시키는 것이 제한된 시간과 지면을 가지고 이를 교수·학습할 때 더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교수법의 측면에서 교사가 연역법과 귀납법의 다양한 교수·학습법 적용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4. 학습자의 언어생활 반영

국어교육이 단순히 개념적 지식만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제 학습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국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단어가 교과서에 쓰여야 한다. 또한, 검정 교과서의 도입으로 기존의 국정 교과서에 제시된 예시만으로는 학습이 어려울 것이다. 여러 종의 검정 교과서에서 쓰이는 다양한 예를 포함하는 원리를 학습하고 다양한 실제 언어가 많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내용의 적정화가 단순히 쉬운 내용을 조금만 제공하여 파편화 시키는 것이 아닌 학습자의 실제 언어생활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여기’의 언어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학습자의 어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많은 학자들의 지적처럼 우리 교과서에서는 학습자들의 어휘 수준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초

보적이다. 집필진 또는 검토진이 읽으면서 그 난이도를 판단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비해 다른 외국어 교과(영어, 한문, 중국어, 일본어 등)에서는 검정 도서를 만들 때 일정한 어휘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런 어휘 수준의 제시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제재 선정의 어려움과 이를 윤문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상황 맥락을 창조적으로 만들 수 있는 문법 영역에서부터 이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는 문법의 한 영역인 국어 정보학의 성과를 실제 교과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단어 형성법 단위에서는 교육용 어휘 등급과 함께 학습자들이 많이 쓰고 그 낱말의 의미가 명확한 단어 위주로 선정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학습자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 구체 명사의 단어 또는 어근이 좀더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한자어와 외래어에 대한 문제이다. 한자어와 외래어가 엄연히 우리 언어 생활에서 사용되는 단어에 뚜렷하게 존재하고 신어(neologism)¹³⁾에 있어서는 그것이 더 뚜렷하다는 사실에서 이 두 어휘 부류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접미 파생을 시키는 접미사 중에서 ‘-족(族)’, ‘-제(制)’, ‘-증(證)’이 1~3위를 차지(국립국어원 2005:13)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한자어의 생산성을 확인시켜 준다.

우선 한자어는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이지만 ‘배추(白菜)’, ‘김치(沈菜)’처럼 국어에 유입되어 통시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국어에 동화된 것과 ‘자장(炸醬)’, ‘라면(拉麪)’처럼 중국음으로 발음되는 것들은 한자어 단어 형성법에서 보이는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는 단어 정도 수준으로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한자어 접사의 경우, 그 생산성이 높은 것 위주로 선별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서 내에서는 한자어의 형태소 분석과 그 형성에 대한 일관된 모습을 제시해야 한다.

13) 기존 언어와의 의미적 연관성 없이 새롭게 창조된 말. 기존의 언어를 이용해서 만든 말, 외국에서 차용한 말. 기존 언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쓰는 말을 통틀어서 말한다. 하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단어 형성의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기존의 언어를 새롭게 조합하거나 기존 어휘의 일부를 변형시킨 경우이다.

예를 들어 ‘시(嫗) - 부모, 아버지, 어머니, 누이’, ‘양(洋) - 배추, 복, 약, 송이, 변기’, ‘예술, 인간, 과학 - 적(的)’, ‘도덕, 인간, 민족-성(性)’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외래어의 경우는 신어¹⁴⁾와 함께 언급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다. 많은 신어가 복합어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10)처럼 외래어가 결합된 다양한 양상을 살피기 쉽다.

(10) 가. 고유어+외래어 맞춤버스(-bus), 곱창밴드(-band), 올챙이송(-song), 당근송(-song)

나. 한자어+외래어 온달콤플렉스(溫達+complex)

다. 외래어+외래어 논스톱샷(nonstop shoot), 노옵션(no option)

셋째, ‘해돋이’류는 그 단어 형성 과정을 어떻게 보는가와 그 구성 성분들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11) 가. [[명사+동사어근]+이]

나. [명사+[동사어근+이]]

(11가)처럼 ‘해가 돋다’에 ‘-이’가 붙는 형태와 (11나)처럼 ‘-돋이’에 해가 붙는 형태로 그 형성 과정을 보고 있다. 그런데 ‘해돋-’처럼 [명사+동사어근]이 독립된 단어로 존재할 수 없고, [동사어근+접미사]인 ‘-돋이’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 생산성도 적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학교 현장에서 교육할 때는 ‘해가 돋다’라는 문장에서 ‘해가 돋는 것’을 나타내는 ‘해돋이가 형성되었다’로 접근하는 것이 ‘해’ + ‘돋는 것’에 비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보인다.

끝으로 학습자들의 실제 국어 생활을 골고루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현재의 교과서는 학습자들의 언어생활 중 지나치게 문어적이고 정형적인 예만을 사용했다. 하지만 새 교과서를 구성할 때에는 이를 벗어나 보다 폭

14) 신어의 경우 일시적으로 유행했다가 사라지는 유행어와는 달리 언중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쓰이는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넓은 언어 자료를 수용해야 한다.

Andrews(2006)는 문법이 바르고 그림을 판단하는 '오류 교정'의 차원을 뛰어넘어 학습자들이 실제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언어 현실이 반영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의 교과서는 단어 수준 또는 한 문장 정도의 짧은 문장 수준을 통해 단어 형성법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매체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이버 언어¹⁵⁾의 경우 매체의 발달과 함께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학습자들이 실제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흥미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광고,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매체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바른 단어로 고치는 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또다른 자료로 인정하는 태도로 단어의 짜임을 분석하고 자신의 사이버 별칭이나 블로그 이름, 메뉴명, 제품명 짓기처럼 새로운 조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IV. 결론

새 교과서에 대한 많은 기대와 걱정이 있다. 특히 문법 영역에서는 문법의 위상 제고와 함께 새로운 문법 교수·학습 방법과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제7차 중학교 단어 형성법 단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위계성 제고와 영역 통합적 단원 구성, 문법 용어의 통일과 명시적 제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학습자의 언어생활을 중심으로 현재 교과서의 어휘 사용 실태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학습자의 언어생활을 반영하는 단어, 신어와 매체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수용을 제시했다.

학습자의 실제 언어생활을 반영할 경우 교수·학습의 문제와 함께 논란이 되는 것까지 언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검정 체제로의 전환

15) 전자우편, 게시판, 채팅, 메신저, 컴퓨터게임, 웹 등과 같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유형을 포함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의사소통 도구로 직접/간접으로 사용되는 언어 모두를 포함한다(시정곤 2006: 222).

과 함께 문법이 국어 능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언제까지 제한된 예시에 머물 수는 없다.

단어 형성법에 대한 이론적 탐색보다는 현재 교과서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구체적인 단원 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다음을 기약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 고려대·한국교원대(2002).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2-2. 교육과학기술부.
 구본관(2001). 컴퓨터 통신 대화명의 조어 방식에 대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10, 293-318.
 구본관(2002). 파생어 형성과 의미. 국어학 39, 105-135.
 구본관(2002). 형태론의 연구사. 한국어학 16, 1-48.
 국립국어원(2005). 2005년 신어. 서울:국립국어원.
 김광해(2003).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서울:박이정.
 김대행(2000). 교과서와 국어교육관. 국어교육학연구 10, 1-18.
 김대행(2007). 국어교육의 위계화. 국어교육연구 19, 7-43.
 노명희(2006). 최근 신어의 조어적 특징. 새국어생활 16(4), 31-46.
 민현식(1994). 형태론의 주요 개념과 문법 교육. 선청어문 22, 111-132.
 민현식(2002). 국어 지식의 위계화 방안 연구. 국어교육 108, 71-129.
 민현식(2007). 문법 교육의 반성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 국어교육연구 19, 287-358.
 송철의(1998). 파생어. 문법 연구와 자료. 서울:태학사. 717-752.
 시정곤(2006). 사이버 언어의 조어법 연구. 한국어학 31, 215-243.
 윤구희(2008). 중학생의 문법 능력 평가 문항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이관규(2005).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 서울:집문당.
 이관규(2008). 학교 문법 교육론. 서울: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임철성(2005). 중등 국어과 교과서 내용 개발 전략 소고. 국어문학 41, 297-321.
- 임철성(2007). 2007년 개정 '문법' 교육과정 검토.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 265-286.
- 정주리(2006). 문법교과서의 내용 개발을 위한 연구. 새국어교육 72, 177-205.
- 정주리(2006). 중학교 <생활국어>에 나타난 문법영역 구성분석. 이중언어학 30, 355-378.
- 정호성(2000). 표준국어대사전수록 정보의 통계적 분석. 새국어생활 10(1), 55-72.
- 조남호 외(2002). 현대국어사용빈도조사-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 서울:국립국어연구원.
- 주세형(2006). 문법 교육론과 국어학적 지식의 지평 확장. 서울:역락.
- 한국교원대·고려대(2002). 중학교 생활국어 2-2. 교육과학기술부.
- Larry Andrews(2006). *Language exploration and qwarenes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Scott Thornbury(1999). *How to teach grammar*. Pearson Eduction Limited.

ABSTRACT

The Problem of Word Formation Chapter in Middle School Korean Textbook

Yun, Gu-Hui(Seoul National University Middle School)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oblems of the word-formation chapter found in middle school Korean textbook based o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and suggest solutions to them.

The word-formation chapter has five problems. First, the word formation chapter is placed in the wrong stage. Second, it is not integrated with the other grammar chapters. Third, it excludes grammar terms on purpose. Fourth, it includes many example words that middle school students do not use practically. Finally, the chapter excludes word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and foreign words that most of learners use in their lives. It leads to confusion in teaching and learning.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five solutions. First, the word formation chapter should be based on the combination of word formation and morphemes. Second, it should be integrated with the other grammar chapters. Third, it should be composed to make learners use efficient grammar words in their lives. Fourth, it should reflect the learners' practical language use. Finally, it should include common words, word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foreign words and neologism.

Key words: school grammar, morphology, word formation,
text book, derived word

윤구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전화번호: 02-943-5812 Email: yun7524@chol.com

논문접수일: 2009년 2월 28일

논문심사일: 2009년 3월 12일

심사완료일: 2009년 4월 6일